

“우린 신나고 옹골차게 노는 사람들”

보름달이 뜨면 정자에 모여 차 한 잔 나누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눈다. 의미 있는 책을 정해 함께 읽고 서로의 생각을 듣는다. 좋은 공연과 영화를 보고, 때로는 사진 촬영을 나가기도 한다.

‘신나고 옹골차게 노는 사람들’을 꾸민 ‘예인회(회장 이용빈)의 모습이다. ‘조금은 느리게, 주위를 돌아보며 살자’는 삶의 철학이 엮비슷한 회원들은 예술과 인문학으로 소통하고, 치유받는다.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2월 공식 출범한 ‘예인회’는 예술과 인문학의 만남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회원들의 주 연령대는 30대~40대 후반. 직업도 의사, 회사원, 주부 등 다양하다. 페이스북을 통해 인연을 맺은 회원들은 한 가지 테마에 매몰되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발전하며 ‘즐거는’ 분야를 늘려가고 있다.

당초 모임의 시작은 ‘사진’이었다. 사진작가 임창진씨를 중심으로 몇몇 지인들이 사진 출사를 나가면서 모이기 시작했고, 이후 각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게 되면서 ‘놀거리’가 공연, 전시, 독서토론 등으로 확장해 갔다.

‘정자야, 달콤네’는 보름달이 뜨면 의기투합하는 행사다. 창경궁, 석영정, 부용각, 풍암정사 등에 함께 모여 세상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작은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난달에는 공연을 직접 주최하기도 했다. ‘곰슴덕의 타령 콘서트’였다. 예인회 회원이기도 한 김씨의 공연을 위해 티켓을 구입하는 정도의 ‘간단한’ 일이 아니라 직접 기획하는 ‘복



지난 2월 열린 창립모임에서 포즈를 취한 ‘예인회’ 회원들. (예인회 제공)

‘예인회’ 예술·인문학으로 소통하고 치유 독서 토론·공연·전시 관람 등 활동 다양

잡한’일을 진행했던 건 지역 예술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서였다. 회원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결과는 나름 성공적이었다. 또 단일 행사로 그치지 않고, 8일에는 ‘곰슴덕 후원의 밤’ 행사도 열 계획이다.

매월 둘째주 목요일에는 광주 시청자미디어 센터에서 독서토론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황광우의 ‘위대한 결정’, 김승규의 ‘죽음의 미학’,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 등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눴다.

오는 13일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최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다큐 감독 신은정씨의 ‘하버드 그들만의 진실’을 토론 주제로 택했다.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는 신감독의 유작

인 동명의 다큐를 감상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함께 좋은 공연과 전시, 영화를 보는 건 회원들의 즐거움 중 하나다. 또 정기출사와 2개월에 한번 정기 모임도 갖고 있다.

‘예인회’는 회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각박한 삶속에서 진짜 활력소가 되요. 제가 음악쪽은 좀 알지만 다른 분야는 전혀 몰랐는데 모임에 와서 전시나, 책 등 저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채울 수 있느니 참 행복해요.”(배준호)

“40대인 저희 나이가 그냥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일 나이잖아요. 함께 책을 읽고 예술을 즐기면서 삶을 재해석하고 재발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이런 기운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정찬영)

“며칠 전에 풍암정사라는 곳엘 갔는데 광주에 살면서도 그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모임을 통해 숨어 있던 공간들을 발견하는 재미가 좋습니다.”(진재영)

‘예인회’는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으로 소통하던 데서 벗어나 현재 인터넷 카페를 제작중이며 아지트 같은 오프라인 공간도 꿈꾸고 있다.

회원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페이스북에서 예인회를 검색하면 된다.

회원들은 ‘풀뿌리 문화’가 탄탄히 자리잡도록 광주에 좀 더 많은 ‘예인회’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빈 회장은 “우리 모임은 소통과 치유를 갈망하는 현대인들의 요구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다”며 “회원들은 예술과 인문학이라는 창을 통해 세상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답을 찾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톡톡 튀는 미술 파티, 함께 놀자”

젊은 작가들 연말 잇단 전시회 눈길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젊은 작가들이 화려한 색깔과 튀는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전시장의 ‘분위기를’ 시도한다. 기존 미술관·갤러리의 틀에 박힌 전시를 벗어나 ‘함께 놀자!’며 관객을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재기 발랄하다. 관람객들 입장에서선 뻥튀기 전시가 아닌, 톡톡 튀는 문화 파티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기쁨이 날다를 수밖에 없다.

7일부터 이달 말까지 광주시 동구 장동 컨스트라운지 솔츠엔 옹골거리에서 열리는 ‘V-파티’는 젊은 작가 75명이 한 데 모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문화의 장이다.

기존 미술 전시에 댄스 팀과 래퍼, DJ가 출연하는 공연·퍼포먼스, 미술 장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관람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즐거운 미술 전시를 일깨운다.

이날 밤 열리는 오프닝 파티는 불황으로 침체된 연말 분위기를 한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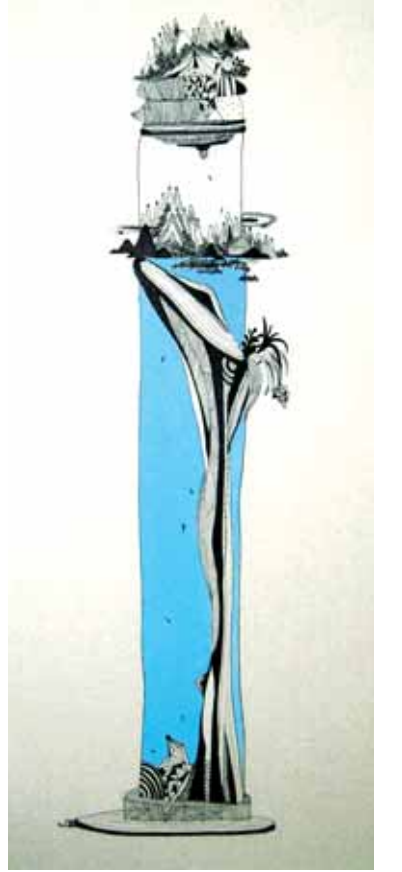
살리면서 ‘재미’에 초점을 맞춘 이벤트다.

젊은 작가들이 내놓은 소품·작품을 대상으로 ‘아트 경매’도 눈길을 끈다. 올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최미연씨를 비롯, 한창 죽가를 올리고 있는 설박·서완호·이조흥·주대희 등 젊은 작가들이 다양한 소재로 만든 상상력 가득한 작품이 ‘착한 가격’에 판매된다.

회수에 위치한 소아르 갤러리도 젊은 작가들이 건네는 선물의 의미를 담은 전시 ‘IT ITEM, ART’전을 다음달 29일까지 열고 관람객에게 친근하게 다가선다.

국내 젊은 작가들의 소품작을 부담 없는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전시로, 감동호, 김혁, 김탁현, 박선주, 서영기 등 33명의 작가들이 참신하면서 톡톡 튀는 발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을 선뜻 내놓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최미연작 'in my city'

국악 명인들을 만나다

‘듀오음악회’ 내일 전통문화관



전인삼 김광복

‘전인삼·김광복 명인의 듀오음악회’가 8일 오후 3시 무등산 자락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린다.

1부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로 제23회 전주대사습놀이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전인삼 전남대 교수가 참여한 다. 전 교수는 이날 공연에서 유쾌한 재담이 돋보이는 ‘흥보가’ 중 ‘놀부 박타는 대목’을 감칠맛 나게 들려준다.

2부 공연을 장식하는 이는 괴리 명인 김광복 전남대 교수다. 중요무형

문화재 구례향제줄풍류 전수조교로 제1회 문화예술진흥대상 수상한 그는 빛고를 국악관현악단 단장과 아시안민족음악교류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문의 062-232-1501~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국 문학인 교류대회

내일부터 금호화순리조트

(대한국지역문학인협회는 8일부터 이틀간 금호화순리조트에서 ‘제 12회 지역문학 전국 시·도 문학인 교류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6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년간 지역 문학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한편, 지역 문학의 현실 인식 및 미래를 전망할 예정이다.

또 대한민국향토문학상 시상식과 ‘한국통일문학의 방향’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 특강, 시낭송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펼쳐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30% 할인봉사 OFF SALE**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 (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 227-9940 총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장흥점 080) 222-9975
 서울점 02) 765-9940 순천점 061) 752-9940

펠릿 불꽃난로 온풍기
기존 난방비용대비 70%절감효율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연료비도 절감하는 펠릿불꽃난로 온풍기!!
연료비걱정은 이제 그만

주택 사무실 영업장 공장 등 실내 어느 곳이나 설치 가능하며 뛰어난 난방효과와 함께 고상하고 우아한 실내분위기 연출효과!!

A형	물꽃난로 제품규격	B형
단독형(스토브식)난로	명칭: 220V, 60Hz	단독형(스토브식)난로
	외형 치수: 500 x 530 x 870	외형 치수: 550 x 750 x 1050
	중량: 약 65kg	중량: 80kg
	일 8시간 기준 약 10kg	일 8시간 기준 약 12kg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8kg	최소 연료 소비량	사용량 일 8시간 기준 약 9kg
최대 20kg	연료 저장량	최대 30kg
60W	정리사양	70W
약83㎡(구 약20~30평형)	사용 면적	약149㎡(구 약40~50평형)

제품별 연료 소비량 비교분석표

제품명	사용연료	일 8시간기준 사용량	금액(한산)
펠릿난로	우드펠릿	약 10kg	3,500원
석유온풍기	석유	약 16L	22,400원
전기온풍기	전기	약 32Kw	10,163원
석유난로	석유	약 10.4L	14,560원

펠릿 연료란?
목재를 연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것으로 석유 대비 값이 싸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신재생에너지로써 가치가 높은 자원입니다.

DS (주)대성에너텍 문의 070-4111-7823
전화 010-9468-3282

대리점 · 취급점 · 딜러
영업사원모집 (유사업종 우대)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50만원~

특수가발 발매!!!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